

[에버렛 스완슨이 후원자에게 보내는 편지]

고아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한국의 대구 근처에 있는 러브 앤 호프 보육원(Love and Hope Orphanage)에 속해 있는 “후원자님의 후원어린이”의 사진을 동봉하여 보내 드립니다. 기도하며 고민한 끝에, 저는 후원자님의 요청에 따라 이 어린이를 후원자님께 배정하였습니다. 여자 어린이보다 남자 어린이가 더 많기 때문에 여자 어린이 대신 남자 어린이를 배정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여러 해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저희에게는 십 대 청소년들도 몇 명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그저 생존을 위해 구걸하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조차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런 힘든 삶을 겪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연령이 높은 어린이들 중에서 이제 막 군에 입대한 두 명이 이번 주에 자신의 후원자님께 보내는 “감사 편지”를 읽고 나서 제 눈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소리 내어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군요.” 이 어린이들의 이전 후원자님들은 이 편지들을 오랫동안 소중하게 간직하며 그 어린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이 보육원의 역사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처음에 대구의 절에 있는 불교 신자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어린이들이 불교 신앙을 엄격히 따르도록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은 보육원의 간호사 한 명이 어린이 몇 명을 여호와의 증인 회관으로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사실 1953 년에 지어졌고, 상태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몇 달 전 저희는 이 건물을 매입하여 이곳을 진정한 크리스천 기관으로 만들자는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중한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미신과 잘못된 가르침 대신,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시애틀의 ¹<라이프 메신저스(Life Messengers)>의 레이 존슨(Ray Johnson) 대표는 이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모금하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저희에게 3,090 달러를 보내주었고, 이 금액은 전부 건물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원치 않는 불청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문과 울타리를 세우고, 필요한 수리를 마치고, 새로운 실외 화장실을 짓고, 우물을 덮는 공간을 짓고 수동 펌프를 설치하는 데도 사용될 것입니다. 3,090 달러로 이곳은 최상의 환경이 될 것입니다!

¹<라이프 메신저스(Life Messengers)>: 레이 존슨(Ray W. Johnson, 1912~2010) 목사가 1944 년 설립한 미국의 기독교 출판사이며, 레이 존슨 목사가 쓴 <히어즈 하우(Here's How)>는 여러 언어로 6,500 만 부 이상 인쇄되었다. 그 외 많은 기독교 소책자 및 전도지를 출판하였다(<https://www.legacy.com/us/obituaries/seattletimes/name/raymond-johnson-obituary?id=17161595>).

저희는 이 보육원에서 매일 어린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훌륭한 크리스천 교사를 고용했습니다. 원장님은 신실한 크리스천 집사입니다. 이사회는 6~7 명의 훌륭한 장로, 목사, 선교사로 구성되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직원들과 어린이들은 기도회를 하고 찬송을 부르며 성경을 읽고 가르칩니다. 윌리엄 그럽(William Grubb) 선교사는 최근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날씨가 드디어 봄을 향해 가는데 이것은 마치 이 보육원의 새로운 영혼과 소망을 증거하는 상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목사님에게 말씀드린 이 스토리로는 다 설명이 안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영의 정한 바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절반 정도의 의미는 전달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졌고 이제 승리했다는 기도의 분위기에 대해 알리는 것은 참으로 흐뭇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보고 있는 이 소중한 생명들을 향한 그분의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의 어린이들이 모두 크리스천 후원자를 만나도록 후원자님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미국에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과의 개인적 교류는 보육원의 이름일 뿐 아니라 그곳에서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사랑과 소망(Love and Hope)"을 더욱 잘 보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교제 위에 계속 임하길,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모든 선한 일에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떻게든 후원자님이 후원하시는 어린이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종종 소포를 보내 주십시오. 어린이들의 답장이 정말 기다려지고 설렐 것입니다. 어린이가 얼마나 기뻐할지 후원자님은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동봉된 안내 사항을 따라주십시오. 어린이 이름과 번호를 꼭 확인하고 써주십시오. 더 많은 사진을 원하신다면 반송 가능한 필름을 요청해 주십시오. 저희는 후원금을 한 달 전에 미리 보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후원금을 한 달 먼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더 많은 후원자를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맡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거리에는 수천 명의 집 없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어린이들을 향한 후원자님의 사랑과 긍휼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현재 한국에서 12 개의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 800 명의 고아, 한센병 환자의 자녀들, 지원을 받는 과부와 더불어 약 700 명 정도가 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고린도후서 9:12)

한국의 어린이를 위한 하나님과 후원자님의 중,

에버렛 스완슨 올림